

종단마다 교육불사 역점

'97 불교계 전망

정축년 새해를 맞았다. 올해의 불교계는 지난해 '깨달음의 사회화운동'의 추진 등으로 불교계의 대 사회적 위상을 높였고, 내적으로는 중앙승가대의 정규대 승격, 승가대학원 개원, 불교문학상 공모, 파라미터청소년협의회 창립 등 어느 때보다 내실있는 활동으로 미려한 도약을 발판으로 치밀한 진전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각 종단을 비롯해 주요단체의 신년계획을 통해 올해 한국불교의 청사진을 그려본다.



를 모으고 있다. 동남아불교국가 지원사업도 활발히 전개되어 민간외교사절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으로 전망된다. 동산반야회가 3월 네팔에 현지법인을 설립, 초등학교를 세우고 빈민구제활동을 펼친다. 불교국가 의약품보내기 운동본부는 오는 21일 창립과 함께 활동을 개시한다. '불교청소년의 해'의 성과물인 파라미터청소년협의회는 올해를 '효경사상실천의 해'로 정해 청소년들의 효사상 고취를 위한 자료집 발간과 각종 행사를 펼칠 예정이다.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는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을 체계화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 개발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12월에 있을 대통령선거도 '97 불교계 전망'의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다.

조계종 '전법의 해' 지정 새시대 포교기틀 마련 중신회 상반기 결성... 자비 실천 해외로 확대

만, 중앙신도회 창립으로 잠재적인 불교신도의 유입은 물론 불교의 대 사회적 영향력이 극대화할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의 '전법의 해' 사업과 맞물리면서 포교의 극대화도 기대된다. 여타 종단들에도 영향을 미쳐 각 종단이 신도조직의 정비 및 창립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대구불교방송의 개국에 이어 청주불교방송이 오는 2월 첫 전파를 발사한다. 강원과 전북, 대전·충남지역 불자들도 불교방송 지방국 설립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어서 불교방송 개국권의 전국화산의 밑그림이 그려지는 한 해가 된다.

또 광주불교문화대학이 3월 설립되는 것을 비롯 각 지역불자들의 활발한 활동이 예상된다. 전북의 경우 전통사찰의 매주 정기법회 봉행과 주요지역마다 도심포교당과 유치원이 들어선다. 제주를 불타제주 중앙클럽을 중심으로 불교화살이나 개최와 청년불자 배양운동을 펼쳐 기록불교를 넘어서는 신행혁신운동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경상북도는 직지사 불교를 비롯한 지역사찰 및 불교단체에서 문경 모전복지관, 상주 냉림복지관, 경산 백전복지관을 새로 위탁받아 운영하게 되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모범적인 불교상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

고계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대선을 앞두고 각 종단과 불교단체가 정치권의 불교포교력에 휘둘러질 분열과 혼란을 자초할 수도 있다. 따라서 불교계는 대선준비를 선언하고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에 기여하는 방안 모색도 올해의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불교계는 대선준비를 선언하고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성운·김원우
김종근·도필선 기자

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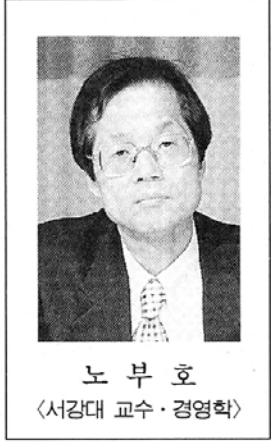
나라걱정 살림걱정

우리사회는 새로운 세기,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면서 산업화시대에서 정보화시대로 바뀌는 대 변혁기에 놓여 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후진국으로 뒤쳐지게 되는 위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지금의 변혁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과제는 크게 5가지로 압축된다.

해결해야 할 5가지 과제

첫째는 경제문제이다. 지난해 우리 경제는 경상수지 적자가 230억 달러, 외채가 1천억 달러를 넘는 부진한 성과를 보였다. 이것은 경기순환적 침체국면이 아니라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구조적 취약성에 기인하는 경쟁력 저하가 그 원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주도의 계획

다. 우리는 노사대립을 노사협력으로 바꾸기 위한 지혜를 짜야 한다. 지금은 투쟁 대립의 시대가 아니라 대화 협력의 시대이다. 협력해도 살아남지 못할 상황에서 대립한다는 것은 죽음을 자초하는 것이다. 노사관계의 핵심은 신뢰관계의 형성이다. 신뢰관계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인간적 경연이다. 이것은 자율과 참여에 기초를 두고 중립의 원칙을 개발을 통해 그들의 존엄성을 확보하는 것을 경영의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그 일차적 책임이 경영자에게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기업조직은 생 각지도 않고 맹목적으로 집단 이기적 행동을 보이는 근로자의 태도는 지양되어야 하지만 경영층도 보다 인간적인 경영을 하겠다는 사과의 전환이 필요하다.



노 부 호
(서경대 교수·경영학)

넷째는 북한문제이다. 지금은 세계 화시대이다. 이것은 사람, 정보, 투자 등 국경을 넘어 이동하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에 세계가 하나의 지구촌이 되고 모두가 협력하는 시대라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한국이 냉전시대를 청산하지 못하고 봉단되어 있는 것은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말말전 잠수함 침투사건으로 대대 한 인명피해를 당

한 것은 남북관계를 위해서 정발 불행한 것이었다. 그러나 북한의 시대적 행태에 맞대응하기 보다는 북한의 어리석은 행동을 일깨워주고 다시는 그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측의 공식 사과 표명이 있었기 때문으로 앞으로의 관계개선을 기대해 본다.

국민적 합의 도출하자

마지막으로 국민들의 의식문제이다. 의식구조와 관련하여 국가발전의 기로 막는 두가지 요소는 부패구조와 지역감정이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정치행태에 기인된 바 있지만 이의 타파를 위해서는 새로운 가치관을 정립하는 운동을 벌여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불교계는 남을 사랑하는 동체대비정신과 남이 잘 할 수 없는 일로 세상을 이롭게 하겠다는 봉사정신에 기초를 둔 불교적 가치관을 생활화함으로써 이 운동에 앞장 서 나가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제기한 경제 선거 노사 북한 의식의 문제들은 모두 우리 불교계가 통과한 뒤 최상의 대립상태에 놓여있

참회의 삶을 살자

현대 불교 연중캠페인



이 원 섭
(시인)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참회라니, 이것도 그리 간단치만은 않다. 나의 경우엔 언제부터인가 겁에 비취벌레가 가끔 눈에 띄게 되어 그때마다 이를 죽인다고

자기도취해서 깨어나자

소동을 떨고 있다. 또 청탁을 받으면 도인이 다 된듯한 굴도 굴할 쓴다. 재가신자니까 오게·십계만 지켜도 된다는 견지에 선다 해도 조금 자신있는 것은 생리적으로 술이라곤 못마시게 되어 있는 불음주계(不飲酒戒) 정도다. 이렇고도 자기마취에 걸린 나의 양심은 지극히 평온

한 잠에 빠져 있다. 부처님은 '깨어 있으라' 하셨다. 중국 선사들은 '성상좌(性相着)'이라 외치며 방(棒)을 휘둘러 제자들을 깊은 잠에서 깨어나게 하려 애썼다. 열반이라는 절대적 안정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무명(無明)의 거짓된 꿈으로부터 깨어나야 급선무이기 때문이다. 누에를 실을 뽑아 고치를 만들고 들어

이 모두는 처음부터 허깨비요 신기루일 뿐이니 손에 남을 것이란 그 무엇도 없다. 아니다. 그런 허망한 꿈을 좇는 자기야말로 허망한 것이다. 지금 당장이라도 죽음을 나를 송두리째 삼켜버릴 지도 모르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나'라고 하는 존재의 본질을 공(空)이 깨닫고 있다는 사실에 눈뜨는 것이 중요하다.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오점(汚點)이요, 과오요, 죄업에 눈 뜰 것이 요청된다. 그리하여 자기의 진존재를 참회할 때 부처님의 계율은 타율적인 것이 아닌 자기 자신의 발원으로 바뀌리니 그 참회의 눈물이 참으로 진지한 것이라면 거기에 맞추어 '보리'라는 이름의 나무도 성장해 드디어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갈 것이다. 참회는 우리네 범부의 발 밑에서 벌어지는 지각변동, 그것도 성불하는 순간까지 지속되어야 하는 지각변동을 잊어서는 안되겠다.

생활 속의 불교 105

내가 나이지 누구긴 누구냐의 그 '나'는?

"주인공은 밝고 영원하고 지극하다. 주인공은 천지가 생기기 이전에도 있었고 실사 이우주가 무너지더라도 사라지지 않는 존재이다. 주인공은 본래 태어나는 일도 없고 죽는 일도 없다. 그 이름이 뭐라하든, 불성 이라하든 자성을 이라하든 주인공은 영원한 생명의 실상, 자기의 실상이다. 주인공은 나의 주인이자 근원인 동시에 일체 만유의 주인이자 근원이다. 주인공은 삼계의 주인이다."

보고 듣고 말하고 먹고 울고 웃고 성내고 욕심부리고... 이것을 다 누가 하는가? 누가 보고 누가 듣고 누가 말하고 누가 울고 웃는가?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게 '나'이지 누구긴 누구냐고 반문할 것이다. 그렇다. 그게 '나'다. 보고 듣고 말하는 주체는 분명 '나'다. 그러나 그 '나'를 설명해보라고 하면 과연 설명이 가능하겠는가? 영혼? 마음? 의식? 우선 뭐라고 불러야 할지 딱히 이름 붙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찾을 수도 없다. 다만 분명한 사실은 설명하지 못하는 그 '나'를 우리는 '나'로 알고

고 있다는 점이다. 사물을 본다고 할 때 보는 주체는 눈이 아니다. 눈은 다만 정교한 카메라와 같은 장치요 기관일 뿐 눈이 보는 것은 아니다. 눈이라는 장치에 비친 영상을 보는 눈은 따로 있다. 따라서 눈이 보는 게 아니라 영상을 보는 그 눈이 진짜 눈이다. 눈 아닌 눈이다. 듣는 것도 귀라는 장치가 듣는 게 아니다. 듣는 진짜 귀가 따로 있다. 몸 동작도 이 육신이라는 장치가 하는 게 아니다. 움직이게 하는 주체가 따로 있다. 눈이나 귀나 육신은 다만 도구일 뿐인 것이다. 그 도구를 작동케 하는 데는 물론 신경조직과 두뇌의 작용이 따른다. 그러나 그런 신경세포를 움직이게 하는 주체의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누구일까? 영혼일까 마음일까? 방금 죽은 사람의 경우 그 생사의 고비에서 삶과 죽음을 갈라 놓은 주체는 무엇일까? 기관이나 장치로만 보면 생사가 갈리는 그 찰나에 달라지는 것은

없다. 그러나 육신은 생명체와 주검으로 확연히 구분된다. 변한 것은 무엇인가. 비유컨대 주검은 자동차를 버리고 운전수가 떠난 것과 같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 육신이라는 차를 버리고 떠난 운전수는 누구일까? 그것이 바로 '나'라면 그걸 영혼이라고 해야하나 마음이라고 해야 하나?

내가 나이지 누구긴 누구냐 하고 만다면 더는 말할 나위가 없다. 나의 정체성을 모르고 그냥저냥 살았다면 그런 것이다. 그러나 '나'를 모르면서 세상은 갖 일에 대해서는 아는 체하고 분별을 일으킨다면 모순이 아닌가? 내가 있어서 세상이 있는 줄 알고 세상 벌어진 것을 아는데 그 아는 주체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모른 채 떠날 수 있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나의 주체를 알아야 남의 주체도 알 수 있고 동물, 식물의 주체도 알 수 있고 이 우주의 주체도 알 수 있게 된다.

도 죽지도 않으며 색깔도 맛도 모양도 없고 늘지도 줄지도 않으며 천지가 갈라지기 이전에도 있었고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을, 이름 붙일 수 없는 일체의 근본이라고 하셨다. 마치 허공과 같아서 설명할 수 없지만 그것은 나의 근본 주인이요 모든 것의 주인이며 일체의 형성법은 거기서 모습을 드러낸 것에 불과하다고 하셨다. 고로 인연뿐 아니라 모든 생명체는 그 주인자리가 한 생각 인연의 도리를 따라 형상을 나누었다가 사라졌다하는 나뭇과 쓰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내가 나이지 누구긴 누구냐하는 그 나의 주체 - 이름하여 주인공이라 한다면 이 육신의 나, 마음이다 영혼이다 하는 것은 저 허공같은 주인공의 나뭇이다. 고로 주인공을 알아야 나의 정체를 바로 알게 되는 것이다.

협찬 : 신정모 · 남장희